

‘구로 지역주택’ 조합원 피해 ‘눈덩이’

구로5동 중앙로일대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 847세대 건설’ 대대적 홍보
계약자 800여명 몰려 460억 납입... 토지구입 77억 사용, 부지 3% 매입
조선족 등 조합원 500여명 “사기 당했다” 남부지점에 대행사 대표 고소

재건축·개발과는 달리, 규제가 거의 없고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붐을 이뤘던 지역주택조합사업들이 곳곳에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합 임원들의 불법적인 사기 모집과 횡령, 그리고 건설사들과의 유착이 불러오고 있지만 정작 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구로 지역주택조합(가칭·구로구보건소 뒤, 구로중앙로 26길 뒤편 33일대) 또한 피해 갈 수 없었다. 이 주택조합원 1차 170명, 2차 200명, 3차 180여명 등 합계 550여 명이 지난 4월과 7월 10월 단체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

이 주택조합은 금천구 가산동에 홍보관을 세웠다. 해당 구로지역

주택조합 측은 구로5동 구로중앙로 26길 일대에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건립한다면서 조합원 847명을 모집했다. 800명이 넘는 조합원이 낸 계약금 3천만원 등 중도금 1.23차 낸 납입금은 약 460억 원이었다. 그중 토지 매입비로 77억 원을 사용했으면서, 업무대행비와 홍보비 등으로 330억 원을 소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입자들이 업무대행사 대표 등을 사기죄로 단체 고소한 것이다.

구로동지역주택조합(가칭)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했다. 구로역 500m, 구로구청 인근에 1230가구, 25층짜리 아파트 ‘구로 월드메르디앙 아트구로’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이곳 금천구 가산동에 모델하우스를 세

우고, 온라인에서도 블로그·카페·사이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홍보영상엔 ‘트리플 역세권, 평당 1300만원의 합리적 분양가. 구로의 품격을 높인다’고 선전했다.

지난해 초까지 847명이 모였다. 대대적 홍보 덕인지 구로구 외 서울 지역이나 인천·경기도에서 온 이들도 많았다. 연령은 주로 50~60대가 많았지만 20대와 70대도 여럿 있었고, 부자(父子)나 부



피해를 입은 구로 지역주택조합원 500여명이 대행업체 대표를 서울남부지법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조합원들이 구로경찰서 앞에서 ‘대행업체 대표 구속수사 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가 나란히 두 채씩 계약하는 이들도 있었다.

847명이나 몰린 이유는 뭘까. 고소장을 낸 조합원들은 가입 당시 홍보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업부지의 70~80%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80% 이상의 부지에 대해 사용승낙(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조건에 거의 다다랐다고 하니 “인가와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2021년”이라는 말도 그럴듯하게 들렸다고 한다. 〈김유권 기자〉
(3면으로 계속)

서울시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

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장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는 확진자 현황에 따라 촘촘한 방역을 위해 1.5단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시민들은 다중이용 시설이나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있는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는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실내에서는 수시로 환기·소독 실시, 이용자·종사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반드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연말 각종 모임은 자제하고 모임시 시설 운영자는

체온측정, 실내 환기, 소독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참석자는 짧은 시간 체류,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 5종과 술집에서 춤추기, 자리 이동 등이 금지된다. 방문판매와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한 룸을 소독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서는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은 필수다.

5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는 허용되 실외 콘서트, 축제 등은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식사 제공과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인원은 30%로 제한된다. 등교 인원은 3분의 2로 권고된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 보건소와 함께하는

2020 비만과 거리두기 사업

사업개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한 각종 만성질환, 신체활동 부족 및 비만 등의 건강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구로구 보건소에서는 간편하게 QR 코드로 접속하여 보건소 운동사가 직접! 실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운동 영상을 배포하여 관내 주민들의 건강 생활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 기간: 2020. 10 ~ 12월
- 일시: 매일 가능한 시간대
- 내용:
 - QR코드 활용 동영상 시청하기
 - 2주간 매일 14일차 신체활동 제공
 - 영상을 보고 운동 따라해보기
 - 운동하고 이벤트 참여하기!

QR코드 사용 방법

-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사용
 - 카메라를 실행한 뒤 후면 카메라에 QR 코드를 인식한 뒤 생성된 링크를 눌러주세요!
- 네이버 또는 다음 어플 사용
 - 검색창 옆 QR코드 클릭하고 인식해주세요

6이 친구를 찍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구로구보건소 신체활동으로 비만예방하기'를 검색해주세요

구로구보건소

문의: 구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860 - 3229

안양천·천왕산캠핑장에도 와이파이 ‘팡팡’

2015년 전국 처음 마을버스에 와이파이망 구축
매년 G밸리, 구로역 광장, 정류장, 공원 등 확대
관내 1,200여개소에 무선접속장치 설치 완료

공공와이파이의 ‘지존’ 구로구가 더 세졌다.

구로구가 “안양천, 천왕산가족캠핑장, 가리봉시장, 구로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와이파이존 설치 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구로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공공 와이파이의 으뜸 도시다. 이성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빈부의 격차로 인해 정보력의 차이가 생기면 안된다”며 ‘디지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와이파이존 조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구청장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구로구는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꾸준히 공공와이파이존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공공와이파이 개념이 없던 2015년 1월 전국 처음으로 관내 모든 마을버스에 와이파이망을 깔았다. 같은 해 구로디지털단지, 구로역 광장, 신도림역 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도 와이파이망을 구축했다. 2016년에는 버스정류장,

일부 학교, 2017년에는 향동 수목원, 공원 등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했다. 이런 노력으로 2017년 대중이 이용하는 구 전역을 사실상의 무료 와이파이존으로 만들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후 2018년, 2019년 음영 지역 해소에 주력해 오던 구로구가 올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까치온’ 사업을 만나 더욱 강해졌다.

서울시 까치온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구로구는 시비 17억원을 투입해 관내 171개소에 무선접속장치를 설치했다. 대표적인 장소가 안양천, 천왕산가족캠핑장, 가리봉시장, 구로시장이다. 도로와 공원 등에도 접속장치를 만들었다. 특히 안양천의 경우 기존 구로구가 설치했던 25개를 포함해 총 40개의 접속장치가 촘촘히 들어서 빈틈없는 와이파이망이 구축됐다.

공공와이파이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와이파이 신호를 검색하고 ‘SEOUL’ 또는 ‘SEOUL-Secure’를 선택해 접속하면 된다. 별도의



구로구가 안양천, 천왕산가족캠핑장, 가리봉시장, 구로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와이파이존 설치 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홈페이지 가입이나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다.

구로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기존에 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무선접속장치의 접속 방식도 ‘SEOUL’ 또는 ‘SEOUL-Secure’로 모두 변경했다. 2020년 11월 현재 구로구에는 까치온 사업으로 설치된 171개를 포함해 총 1,200여개의 무선접속장치가 구축되어 있다.

박대순 홍보전산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변하고 있어 와이파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빈틈없는 공공와이파이존 조성으로 정보 이용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 지체장애인지원회 구로지회 감사패 받아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더불어 민주당, 신도림동·구로5동)은 지난 13일 서울시 지체장애인지원회 구로지회에서 장애인 단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조미향 의원은 평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난 해 9월에는 ‘구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단체와 동호인 조직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게됐다.

지체장애인지원회 이종웅 구로지회장은 이날 조미향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그동안 장애인과 어르신,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에 앞장서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왼쪽)이 지난 13일 서울시지체장애인지원회 구로지회에서 장애인단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며 장애인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지체장애인지원회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약자를 대변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권기자>

이재만 구의원, 고척초 후문 낙후 골목 계단 정비현장 방문

“브라질 리우 ‘셀라론 계단’ 처럼 관광명소로”

이재만 구로구의회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고척1동 소재 고척초등학교 후문 골목길의 위험하고 낙후된 골목 계단 정비현장을 방문하여 고척1동 지역주민들과 진행상황 및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을 당부했다.

고척초 후문 골목계단 정비사업은 지난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재만 의원이 예산을 추가 반영하고 디자인은 브라질 리우의 셀라론 계단을 벤치마킹, 올 여름 기본 설계 및 디자인을 선정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이 고척초등학교 후문 낙후된 골목 계단 정비현장을 방문, 주민들과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이재만 의원은 “브라질 리우의 대표적 골목 관광명소인 셀라론 계단처럼 쇠락해 가던 계단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관광 명소로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스피치 역량강화 교육·천왕산캠핑장 방문

정례회 대비 전문성 확보, 사업장 현장 의정활동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12일 오전 의회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스피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구로구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의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제298회 정례회를 대비하여 구정질문, 회의진행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스피치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휴스피치 학원 박민영 대표가 발성 발음 등 목소리트레이닝, 다양한 스피치 전달법 등을 내용으로 사례와 실습 위주의 생동감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의원들은 지난 9월에 개장한 천왕산가족캠핑장 일대를 방문하여 현장 의정활동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12일 오후 지난 9월에 개장한 천왕산가족캠핑장 일대를 방문,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을 펼쳤다. 의원들은 구로구 주요 현안사업인 가족캠핑장 운영, 인공암벽장 설립 등과 관련하여 구청 녹색도시과장으로부터 사업의 진행상황과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캠핑사이트, 샤워장, 식기세척장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꼼꼼히 현장을 살폈다. 의원들은 캠핑장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 관계자에게 캠핑장 이용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며 주민불편사

항이 없도록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장활동을 마치고 박동웅 의장은 “앞으로도 구로구의회는 구로구 주요 현안사업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홈페이지 :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 02)830-0905 메일 : news121@empas.com
회장 : 유희상 주간 : 한만수 등록번호 : 서울 다-5105 구독 / 광고문의 010-9096-1144	발행인 : 김유권 편집국장 : 채홍길 등 록 번 호 : 서울 다-5105 구 독 료 : 월 5,000원 / 연 50,000원 기사제보 : 02)830-0905 계좌번호 :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구로 지역주택’ 조합원 피해 ‘눈덩이’

〈1면에서 계속〉

구로동지역주택조합측은 조합원 모집 당시 토지사용 승낙서를 50%나 부풀려 광고했으며, 토지 지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비율이 80%라고 허위 광고했는데, 실제 확보율은 30%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문제는 단순 확보율이다. 실제 사업 부지내 땅을 매입한 비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주들에게 동의서만 받은 상태로, 동의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땅을 수용할 수 없다. 더욱이 동의서에 사인한 지주들이 나중엔 변심하거나 애초에 협의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땅값을 요구하며 매도를 거부하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 조합에서 사들인 땅은 겨우 3%에 불과하다고 알려졌다. 지역주택 사업을 추진한 지 약 5년간 사업 부지 매입률은 30%

가 아니고 ‘3%’였다. 이러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조합원 중 3분의2가 조선족 동포들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내집 마련의 꿈이 한결 부른 이들에게 상처를 안기는 결과다. 주택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토지 확보율을 가장 먼저 꼽는다. 내 땅, 또는 내 집을 헐어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주택 조합 사업은 남의 땅과 남의 건물을 사들인 다음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만큼이나 사업 부지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지역주택 가입 희망자들이 토지 확보율이 높은, 사업성이 다소 안전해 보이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일부 지역주택 추진위원회 측이나 업무대행사는 사업 추진 초반 아파트 광고를 하거나 홍보관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 토지매입률을 부풀리는 등의 과장광고를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

과장광고가 아닌 허위광고인 것이 문제이다. 과장광고로는 대행사 측에 책임을 물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알려 계약을 종용한 경우, 사기 의심을 해박야 한다. 실제 허위광고 등에 속아 계약을 했다가 가입 이후 허위광고라는 사실을 알게 돼 계약 취소 또는 계약 무효를 요청하며 납입금 전액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역주택은 한번 가입하면 탈퇴, 환불이 쉽지 않다. 대행사 측의 말만 듣고 꼼꼼한 계약서 검토 없이 사인 먼저 하거나 계약금 먼저 납입하는 건 금물이다.



피해를 입은 구로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구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조합규약서, 가입 계약서, 약속서, 안심보증장서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지 여건이나 자금 관리 안정성 등도 따져

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결국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입증하는 건 문제 제기를 하는 조합원이기에 가입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 7월24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부지의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에 나설 수 있고 ▷업무 대행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법인에 맡겨야 하며 ▷조합원 모집 신고 후 2년 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종결할 수도 있다. 〈김유권 기자〉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착수

위법 적발시 모집주체 고발 등 행정조치

서울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앞서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와 시·구 합동회의를 열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실태

고·처리·관리 등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관련 협력방안 도출 및 2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조합원 모집신고된 (가칭)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집 중인 주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기본사항 확인 및 홍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로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 주기적(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궁극적으로 향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청과 ‘카톡 친구’ 맺고 각종 소식 받아보세요”

‘알림톡’ 서비스 ... ‘카카오톡’으로 문화·예술 등 행사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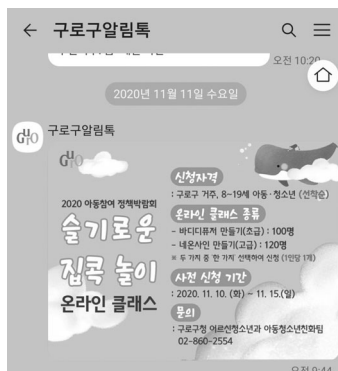
구로구가 ‘구로구알림톡’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구정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구로구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구로구알림톡’은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행사 정보와 매월 발행되는 구 소식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해준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는 카카오톡 앱 친구찾기 메뉴에서 ‘구로구알림톡’을 검색한 뒤 추가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는 ‘문자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재난·안전 ▲문화·행사·교육 ▲디지털 구로 소식지 ▲대기질 ▲복지 ▲생활·경제 ▲건강 등 7개 분야



중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박대순 홍보전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구로구의 각종 소식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 보훈단체협의회장에 김현수 무공수훈자회 회장 선출

구로구보훈단체협의회는 지난 11월16일 오전 10시 운수동 구로보훈회관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2월31일 임기를 마치는 현 이흥균 회장(88세 6·25참전 유공자회 구로구지회장) 후임에 김현수(사진·79세 무공수훈자회 구로구지회장)씨를 선출했다.

이날 구로구보훈단체협의회는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 지회장 9명이 모두 참석해 투표로 선출했다. 신임 김현수 회장의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신임 김현수 차기 회장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부여단장으로 근무했다. 화랑무공훈장, 인헌헌장, 월남남성훈장을 수훈했다. 〈채홍길 기자〉

남구로시장상인회 제6대 회장에 이희술 현 회장 당선

남구로시장상인회는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올해 12월31일로 2년 임기가 끝나는 현 이희술 회장을 이을 차기 제6대 회장에 이희술(사진·71세 구로주방그릇 대표) 현 회장을 선출했다.

투표로 치러진 선거에서 이희술 후보가 95표를 획득해 79표를 얻은 최영기(대성정육점 대표) 후보

를 16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무효표는 4표가 나왔다.

이날 투표는 총회원 185명중 178명이 투표에 참여 96%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까지 12월까지 2년이다.

제6대 회장에 당선된 이희술



회장은 “앞으로 회원들과 더욱 소통하고 화합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고객들이 더 많이 찾는 명품 남구로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유권기자〉

이형춘 구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인터뷰

“여러분의 정성어린 성금품, 복지사각주민 등에 큰 힘 되지요”

“우리 구로희망복지재단 역할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역내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구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일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므로 저희 재단은 민간자원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복지 자치’를 실현하는 일이지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이형춘 이사장을 지난 10일 오후 구로동 재단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 구로희망복지재단 설립 배경과 역할은?

2008년으로 기억됩니다.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과 모임을 갖고 했는데 봉사와 지역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지속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경영하는 기업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구로구민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니 이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뜻으로 모였는데 구로희망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2명의 발기인이 구성됐고 구로구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9년 3월 13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후 그해 7월 1일 공식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단 출범이 논의되던 2000년대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분출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배고프다는 경제적 문제를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로 전환되던 시점입니다.

자연스럽게 재단의 설립 목적이 정리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기능이므로 구로희망복지재단은 민간자원을 이용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함으로써 구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복지 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의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역내 민간자원을 활용해 구로구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법률 등의 요건에 맞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구로희망복지재단의 차이점은?

구민 복지 향상에 기여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크게 3가지 영역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법률체계에서 구분됩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합니다. 법률명에서 보듯이 공익성이 강하고 이에 따른 재단 운영에 있어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 관련시설 중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된 지역복지재단으로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 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財源)으로 구분됩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설립 배경에서 보

2009년 7월 발기인 12명으로 재단법인 출범

2014년말 후원금품 10억, 2019년 32억 넘어

‘코로나19 극복’ 성금품 후원한 구민들에게 감사

듯 민간 영역에서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만 구민 복지 향상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는 민간자원을 발굴해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당해 시설의 이용자에 한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면 우리 재단은 구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접 지원과 자립기반이 미약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여 이용자의 복지를 간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있다면?

지난 2015년 3월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으니 6년차입니다. 재임 중 나눔 문화 확산과 재단 자립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이 존립하는 목적이 구민 복지 향상에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민간자원으로 이뤄지므로 나눔 문화 정착을 통한 자원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형춘 이사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저희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지역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지원해 구청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복지 자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구로구·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구로희망복지재단이 함께하는 ‘구로나눔네트워크 업무협약’ 2018년에는 SBS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2018년 서울관악고용노동청과의 ‘고용·복지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등 복지자

로 남습니다. 공익법인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재단 운영까지 제한받아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법인 운영에 있어서 기업가적 사고(思考)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재단을 운영하는지?

코로나19는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게 주민의 일상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대면 자체가 어렵다보니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대다수가 중단됐고, 시행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축소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야구 무료 관람, TV방송국 견학 및 녹화

프로그램 방청은 아예 시도조차 하질 못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과 일용근로자를 위한 무료급식소 지원도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어 도시락 배달로 대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단 역량을 코로나19 극복에 집중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구로에서 집단 발병돼 지역사회가 긴장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고 이때부터 코로나19극복에 사용해 달라는 성금품이 5억7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후원해주신 성금으로 저소득 소외계층과 취약시설에 마스크와 방역 등을 지원 했는데 만약 구민 성금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 생각 해보면 지금도 아찔한 느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앞으로의 재단 운영 계획은?

오는 2021년 4월로 6년간의 이사장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사장에서 물러나더라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임원으로 계속 봉사를 하겠지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는 시간이라는 물리적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부분을 무탈하게 마무리해서 후임 이사장이 더욱 지역사회에 봉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채홍길 기자〉

이형춘 이사장, 국가품질경영대회서 ‘국민포장’ 수상

이형춘 이사장은 구로희망복지재단 발기인으로 2015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구로구 장학재단 이사(2008~현재), 부천상공회의소 부회장(2016~현재), 삼남복지재단 이사장(2017~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복된교회 장로(1994~현재)로 재직하고 있다.

이형춘 이사장은 초정밀 특수스프링 전문 제조 회사인 ‘삼광정밀공업’과 골프용품 제조, 유통하는 (주) ‘코비스 스포츠’를 경영하고 있다. 삼광정밀공업은 지난 2019년



2019년 11월 13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사진 오른쪽이 이형춘 이사장, 왼쪽 첫 번째가 이낙연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11월 1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영 혁신 활동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포장을 받기도 했다.

구로4동 보안협력위 위촉장 및 공로패 수여

정현탐웨딩홀서 조정현 위원장 등 20여명 참석

구로경찰서 소속 구로4동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조정현)에서는 지난 12일 오후 6시 대림역 정현탐웨딩홀서 1층 예식홀에서 박한 구일지구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로4동 보안협력지도위원 '경찰의 날 위촉장 및 감사장 표창장 특별공로패 전달식'을 구로구의회 박철성 의원(전 반기 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서 송재열 부위원장, 김서영 재무위원이 위촉장을 받았으며, 구일지구대장 박한 경정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조정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하자"고 말했다.



구로경찰서 소속 구로4동 보안협력위원회가 지난 12일 오후 6시 대림역 정현탐웨딩홀서에서 경찰의 날 위촉장 및 감사장 표창장 특별공로패 전달식을 가졌다.

구로4동 보안협력위원회는 위원장에 조정현, 부위원장 송재열, 사무총장 김남희, 재무 김서영 등 28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구로4동 보안협력위원회는 구로경찰서 관내 탈북민 자립지원과 다문화가정 및 체류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박한 구일지구대장은 인사말에서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민 안보의식 제고의 중추적인 역할과 더불어 다문화가정과 체류외국인이 증가에 따른 지역의 관심과 배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유권 기자>

오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밀반찬 나눔' 앞장

회원들 매년 월 2회 직접 조리, 독거어르신 등에 전달

오류2동(동장 김수한)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매년 관내 취약계층에게(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월 2회 밀반찬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행사 주관은 오류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인태)에서 '나눔네트워크 사업' 일환으로 관내 취약계층 18가구(2020년기준)에 대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이 직접 재료를 구매하고 정성껏 조리하여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밀반찬 나눔 사업에는 오류2동 관내 정육점(제주돈) 및 식당(복덩이순대국)에서 월 1회 고기(15근) 및 국(20그릇)을 후원 제공해 양질의 밀반찬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수혜받는 대상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고, 영양결핍 해소 및 정



오류2동 사회복지보장협의체위원들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관내 취약계층에게 월 2회 밀반찬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적인 안부확인으로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유희상의 열린 칼럼



조선 500년의 역사는 당쟁(黨爭)의 역사라 해도 무리는 아니다. 임진왜란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천년고찰이 불태워지고, 문화재들이 약탈당한 것도 당쟁의 산물이다. 충분히 병사들을 양성하고, 훈련을 해서 왜놈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쟁에 휩싸여서 결국 금수강산을 피

는 정책은 무조건 안 된다는 흑백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화합이다. 흑백논리는 민주주의에서 암적인 이념이며 관념이다. 정치인들은 신(神)이 아니다. 유권자 중에는

흑백논리의 오류 ㉞

로 몰들었다.

당쟁은 흑백논리가 깔려 있다. 흑백논리는 모든 문제를 흑과 백, 선과 악, 득과 실이라는 양극단으로 구분하다 보니, 이성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가 없다.

조선 500년 당쟁의 역사는 지금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권력을 쥔 쪽에서 상대방 무리들에게 얻은 죄를 만들어 삼족(三族)을 멸하거나 귀향을 보냈다. 현재의 정치에도 상대방이 추진하

정치인보다 훨씬 많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정치인보다 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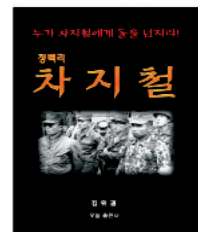
선거 때는 '읍소 주의'로 손바닥이 닳도록 악수를 하고, 흑백 논리에 휩싸여서 유권자들을 무더기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정치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한 신 같은 존재는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본지 회장>

송인태 오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은 "후원해주시는 주민들께 감사하다"고 전한다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에 대

한 관심과 지역사회 복지사업 참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륙판 양장/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색을 띄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종식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집으로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실시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대상

의사·간호사·운동사 등 ‘건강돌봄팀’ 방문 통합 서비스

구로구가 건강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진 건강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 건강관리를 돕는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을 전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는 구청과 병·의원, 약국 등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며, 구로구는 지난해 서울시의 자치구

공모에 응모해 선정됐다.

사업을 위해 구로구와 관내 민간 의료기관들은 마을의사,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등 5개 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을 조직했다.

‘건강돌봄팀’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살펴 돌봄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돌봄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간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혈압·혈당 관리, 운동·영양관리, 심리상담 등 통합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검진, 치료 등

의료서비스까지 연계해준다.

이 밖에도 거동이 불편한 외과환자를 대상으로 드레싱, 당뇨발 관리, 튜브 관리 등의 치료와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는 G밸리보건지소(구로구 디지털로 243, 지하이시티 2층)를 방문하거나 전화(860-8176)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철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보다 면밀히 챙길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주민 건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보건행정과 G밸리보건지소 860-8176. <채홍길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사)글로벌행복한사람들의 지구촌놀이터 개소식이 지난 17일 오후 3시 가리봉동 영진빌딩 B동 4층 강당에서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역아동센터 ‘지구촌 놀이터’ 개소식 성황리 열려

17일 가리봉동 영진빌딩 4층 강당서 각계 인사 50여명 참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 제훈, 본부장 여인미)과 (사)글로벌행복한사람들(이사장 최형묵, 대표이사 안강현)의 지구촌놀이터 개소식이 지난 11월 17일 오후 3시 가리봉동 영진빌딩 B동 4층 강당에서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강현 대표이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구촌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해금연주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가 있었다.

이어 최형묵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디즈니랜드에 아동들과 함께 가고자하는 소망과 함께 놀이터가 만들어지도록 그동안 함께해주신 구로구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아울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여인미본부장, 박동웅 구로구의회의장, 최동욱 이사, 정지운 교수, 장예선 이사장, 구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윤석주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성 구청장, 윤건영 국회의원, 장인홍 시의원, 구로오늘신문 유희상 회장, 다원학교 김효경 교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이광재 교수 등이 영상으로 놀이터개소식을 축하했다.

축사에 이어 (사)글로벌행복한사람들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 제훈회장과 공사를 맡아준 (주)대창메디칼 남상렬 대표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개소식을 마치고 내빈들과 아동들의 기념사진을 촬영 후 테이프 커팅과 함께 시설 라운딩이 있었다.

산뜻한 조명시설, 댄스 등 활동을 배우기에 적절한 대형 거울, 그네, 암벽오르기, 볼풀장, 모션뷰, VR 등 훌륭한 시설을 갖췄다. 2년 전 패쇄 위기에 처했던 지구촌 지역아동센터가 구로구청의 노력과 (사)글로벌행복한사람들, 그리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만남이 최고의 지역아동센터로 변신하게 됐다. <채홍길 기자>

조재화 구로구 맥가이버 봉사단장

경로당·복지관에 마스크-쌀 ‘나눔’ 앞장

조재화 구로구 맥가이버 봉사단장은 지난 10월 30일 구로4동 복지경로당에 마스크 1500매를 개인적으로 기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다.

조재화 단장은 구매자금 출처와 구로4동 복지경로당에 마스크를 기부한 이유를 물음에 “구매비용은 폐자원을 수거·판매한 수익으로 조달했다. 파지값이 떨어져 폐자원 수거·판매 수익이 많지 않아 전처럼 수거·판매 수익으로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파지값이 떨어져 지금은 파지, 우유팩, 종이컵 등은 물론 소형가전제품까지 수거·판매한다”며 서복례 총무가 귀띔해 준다.

조재화 단장은 봉사에 있어 흥길동인 것 같다. 주거환경개선 봉사, 밀반찬 만들·나눔 봉사, 치매검진 지원봉사, 어르신 생신잔치 지원봉사, 환경정화 봉사 등 구로



조재화 구로구 맥가이버봉사단장은 지난 10월 30일 구로4동 복지경로당에 마스크 1500매를 개인적으로 기부했다. <사진 오른쪽이 조재화 단장>

구 어디든 어떤 봉사든 봉사가 필요한 그 자리에 늘 있는 것 같으니 말이다. 거기에 폐자원 수거·판매를 해 마스크 기부까지. 10월 30일도 오전에 도배, 오후에 단열벽벽이 작업등의 주거환경개선 봉사를 마친 상황이었다.

“코로나 19로 어르신 생신 잔치, 치매 검진 봉사 등, 어르신들 관련 봉사가 현저히 줄어 어

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일회용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고 조 단장은 말한다. 구로구 맥가이버 봉사단이 진행하고 있는 봉사의 많은 부분이 어르신들 관련된 봉사이다. 조재화 단장이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같이 느껴진다.

또한 조재화 단장은 지난 11월 2일 구로구 공동종합사회복지관에 쌀 10kg 20포를 개인적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조재화 단장의 따뜻한 마음이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들의 몸도 마음도 녹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녹였으면 좋겠다.

<이재환 구로4동 시민기자>

‘제1회 향동 마을축제’ 열려

푸른수목원 일대에서 사진전, 마을생활안내 지도만들기 등

구로구가 제1회 향동 마을축제를 개최했다.

구는 올해 신설된 행정동 향동의 출범을 기념하고 마을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향동 마을축제’ (사진)를 마련했다.

지난 14, 15일 이틀간 푸른수목원 일대에서는 향동의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향동

사진전’이 펼쳐졌다. 전시 사진은 공모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로 구성됐다.

마을 생활안내 지도를 만드는 ‘향동 알림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지도에는 향동 지역 내 관공서, 교육기관,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한 소개와 전입신고, 쓰레기 배출 등



각종 생활정보가 수록된다. 이달 말 동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구로구는 오류2동에 속해 있던 향동을 올해 1월 1일자로 분리해 행정동으로 신설했다.

<한만수 기자>

제6회 수궁동 우수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초·중·고생 21명에 모두 1,800여만원 전달



수궁동 장학회가 지난 11월 수궁동 다목적방에서 우수장학생 21명과 각계 인사, 장학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수궁동 우수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궁동 장학회(회장 동규원)에서는 지난 11월 오후 4시 수궁동 다목적방에서 우수장학생 21명과 박동웅 구로구의회의장을 비롯한 조은영 동장, 정순자 주민자치위원장, 장학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수궁동 우수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증서를 받은 초·중·고생 3명 각 60만원, 중학생 5명 각 80만원, 고등학생 13명 각각 100만

원씩 등 21명에게 1천8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 성금은 회원 13명의 회비와 실시일반 수궁동 주민, 세풍운수 조귀만 전무, 기업체, 폐지를 모은 할머니·할아버지, 운수업 조합장들이 모금해 전달하게 된 것이다.

수궁동 장학회는 최애정 부회장, 총무 이창수, 감사 이완세씨 등 13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유권 기자>

관내 확진자 증가세 심상치 않다

일주일새 17명 급증 ... 18일 현재 228명

202명 완치 퇴원-26명 치료중

구로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일주일 새 17명이 추가로 발생해 모두 228명으로 늘었다. 18일 현재 202명이 완치 퇴원하고 26명이 치료 중이다.

관내 226, 227번 확진자(개봉1동)는 215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 14일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 받았으나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16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검사하고, 17일 양성 판명됐다.

228번 확진자(신도림동)는 222번 확진자와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16일 구가 실시한 해당 어린이집 전수검사 결과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217번 확진자(오류2동)는 212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 14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오늘 양성 판명됐다.

218번 확진자(오류2동)는 214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14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15일 양성 확진됐다.

219번 확진자(개봉1동)는 타 지

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14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15일 양성 판명됐다

213번(오류2동) 확진자는 타 구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지난 13일 중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14일 양성 판명 됐다.

214번(오류2동) 확진자는 지난 11일 가래 등 증상 발현에 따라 13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14일 양성 판정됐다.

215번(개봉1동) 확진자는 타 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13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14일 확진됐다.

216번(구로5동) 확진자는 타 구 소재 직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3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14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18일 현재 구로구 관내 확진자는 228명으로 치료중 26명, 완치자 202명이며 자가격리자는 밀접 접촉자 61명, 해외입국자 288명 등 모두 349명, 능동감시대상자 2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구로콜센터 관련 20

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부천시 구광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보성문수 관련 4명, 타시군구 접촉 67명, 해외 입국 4명, 기타 7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확진자는 18일 현재 모두 6,995명으로 구청별로 보면 ▲관악구가 495명 ▲송파구 494명 으로 2개구가 400명을 넘어섰고 ▲성북구 397명 ▲강남구 396명 ▲강서구 388명 ▲노원구 374명 ▲은평구 303명으로 5개구가 300명을 넘어섰다. 또 ▲동작구 295명 ▲서초구 293명 ▲도봉구 261명 ▲동대문구 250명 ▲영등포구 238명 ▲구로구 228명 ▲중랑구 227명 ▲강동구 225명 ▲양천구 213명 ▲마포구 210명으로 10개구가 200명을 넘어섰고 이어 ▲서대문구 183명 ▲성동구 183명 ▲용산구 170명 ▲강북구 167명 ▲광진구 153명 ▲금천구 103명 ▲종로구 103명으로 7개구가 100명선을 넘었고 ▲중구만 유일하게 84명으로 두자리 수다.

〈채홍길 기자〉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구로구,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지난 13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따라 구로구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르면 집중단속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미착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며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경

기장,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5~3단계에서는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중에는 집중단속시설이 아니더라도 모든 실내 시설과 밀집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허가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 마스크 등이며 마스크로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거나 망사·벨트형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경우 미착용자로 간주된다.

구로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유권 기자〉

구로소방서 ‘제58주년 소방의 날’ 직원 표창



구로소방서는 지난 9일 회의실에서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유공직원 등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구로소방서(서장 권오덕)는 지난 9일 회의실에서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올해 소방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소규모로 진행돼 소방 발전에 기여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만 열렸다.

권오덕 서장은 “소방의 날은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이다.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검사 기준 대폭 확대

정부 “단순 발열·기침만으로도 바로 검사”

방역당국이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대상자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심 증상이 있어도 지자체별로 기존 확진자와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무료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의심 증상만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일 확진자 수를 1단계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대책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단장은 “이렇게하면, 열이나



방역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대상자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사진은 구로구 선별진료소〉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역학적 관련성도 고려하면서 진단검사를 받아 일정 부분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학적 관련성과 무관하게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검사 절차도 개선한다.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사전문진표, 검사의뢰 서식 등을 배포해 방문 전 사전작성, 대기시간 및 행정절차 없이 신속히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만수 기자〉

전통시장페이백(Pay-Back) 행사 열린다

단체·시설, 주민 대상... 상품 구매 금액 20% 온누리상품권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구 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페이백(Pay-Back) 행사가 열린다. 전통시장 상품 구매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참여자는 식자재, 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요양원 등 단체·시설은 29일까지 구로·남구로·가리봉시장에서, 주민들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구로·남구로·가리봉·고척근린시장·고척골목상점가에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23일부터 27일까지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대회도 열린다. 관내 유치원생·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구로·가리봉시장에서 펼쳐진다.

20일까지 선착순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무지 에코백, 아크릴 물감 또는 패브리카가 등이 지급된다. 에코백 완성작 제출자에게는 시장체험 상품권이, 수상자에게는 내달 7일 발표 후 상장과 시장체험 상품권이 제공된다.

〈채홍길 기자〉

장고춤·단소 등 유튜브로 배운다

‘온라인 구로문화원’ 27일까지 6개 강좌 운영

구로구가 ‘온라인 구로문화원’을 운영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주민들에게 새로운 취미생활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구로문화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구로문화원’은 이달 27일까지 유튜브 ‘구로G페스티벌’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창의 영 어 미술, 바른 글씨, 장고춤, 어반 스케치, 단소, 여행 영어 등 6개의 강좌가 열린다. 각 강좌별로 4~20회의 강의가 실시간 스트리밍되며, 지난 강의도 다시 볼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로문화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gurocc0837>)를 참조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주민들에게 새로운 취미생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구로문화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면 된다.

수강을 원하는 이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면 된다.

유영직 구로문화원 사무국장은 “이번 ‘온라인 구로문화원’이 답

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꿈의 오케스트라 구로’ 정기연주회 열려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서, 구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생중계

‘꿈의 오케스트라 구로’가 정기 연주회가 열렸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어린이들이 합주 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존



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이다.

이번 연주회는 지난 14일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진행됐다.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가득 담아!’라는 주제로 ▲‘마술피리’ 서

곡(모차르트) ▲사계 중 ‘가을’ (비발디) ▲작은 별(모차르트) ▲디즈니 메들리 ▲이웃집 토토로 OST ▲톰톰 풀러리 ▲하얀겨탑 OST ▲캐리비안의 해적 OST ▲

‘꿈의 오케스트라 주제곡’ 등 총 8곡의 연주가 펼쳐졌다. 연주회는 구로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김유권 기자〉

초대시

효자손

시인 김 춘 경



늙네장으로 시력을 잃은 어머니
늘 손에 꼭 쥐고 계신 게 있었다.

외로운 타국생활 말년
일터 간 자식 홀로 기다리는 동안
반려견처럼 베풀며
탁자 위 사랑도 집어주고
화장실 안내를 하더니

지구 반바퀴를 날아와
요양원에 누워 계신 엄마 곁을
자식처럼 지켰다.

‘니가 나보다 낫구나!’

세월을 감싼 힘없는 주먹엔
등근 나이트가 자라고
꽃은 피고지고...

누렇게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어머니의 효자손
낡은 쇠갈고리 되어
멍든 내 가슴을 세차게 긁는다.

* 김춘경(金春瓏) /사공(沙工)

- 2009년 월간21 시단단, 2009년 계간 문장 수필 등단
- 제6회 노천명문학상 대상 수상, '2011 한국을 빛낸 사람들' 한국방송문화발전공로 대상 수상, '제1~2회 대한민국 시낭송 대상' 수상(2015~2016)
- 시집 [그대가 내게로 오기까지] [사랑을 묻는 그대에게] 출간, 낭송칼럼시집 [문학이 있는 인생은 고독하지 않다] 출간, 전자시집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 발간 및 동인지 '시와소리' 1·6집 발행인
- 김춘경 시낭송 음반 1집~3집 발간 (2005~2009)
- 목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시낭송 지도교수
- 제1회 전국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 심사위원장 등 심사 활동 다수
- 대전시마을문화회 회장, 한국낭송문학협회 고문(초대회장), 시와소리 전국문학낭송대회 운영위원장, 대전문예대학 시낭송 지도교수, 시낭송 지도사 자격증 과정강사 활동.

60~65세 취업 원하시면 전화하세요
 (경비/청소등 전문 무료 알선 기관)

100세 시대... 아직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과연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을까?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는 60세 이상 구직을 원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취업상담 및 구직 알선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전화 또는 방문해 주세요.
 ○준비서류 : 이력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월~금 09:00~17:00)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

구로구지회 (신도림역 2번출구, 02)852-459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8길39, 1층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문의 02-120

선을 지키는 선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보도의 주인은 보행자입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는 선을 넘지 말고 보행자를 보호해주세요